

# 원어민과 내국인 교사의 협력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문지현  
(광주학강초등학교)

## 초록

현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이와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한다. 얼굴도 모르는 수백, 수천, 수만 명과 익명의 친구가 되어 자신의 일상, 생각을 노출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말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습성이 교실 속 영어시간에도 발휘되기 위하여 PPP모형<sup>1</sup>을 활용하였다. 40분 1차시 수업은 [전 차시 복습]과 [본 차시 수업]으로 구성된다. [본 차시 수업]에 학생들에게 문형을 제시하고, 통제된 연습, 유도된 연습을 통해 충분히 연습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전 차시 복습]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활용하여 발화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배우의 연기가 아닌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의사소통 장면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대화 장면을 제시하되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화한다. 이 외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교사의 장점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결과 내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간의 역동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발화 확장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Keywords:** PPP모형(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Model), 원어민 협력수업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은 종종 8단원을 배울 때 6단원에서 배운 표현을 기억하지 않는다. 영어를 습득하지 않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영어는 과목이기 전에 언어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

<sup>1</sup> The PPP(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Model): 청화식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의 영향에 의해 개발된 수업 절차로서 제시-연습(통제된 연습, 유도된 연습)-발화의 3 단계로 진행된다.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대화의 예를 보이고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협력 수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사들이 명확한 역할분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효과적인 협력 수업의 수업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첫째,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안한다.

둘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복습 활동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다.

## II. 연구의 실제

### 1. 원어민 교사와의 역할 분담

#### 가. 수업 전

##### 1) 자료제작

연구자가 원어민 교사에게 맡기는 자료 제작은 주로 1, 2차시에 사용하는 Listen & Repeat(듣고 따라말하기)를 위한 PPT 자료이다.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 교사에게 그 단원의 핵심구문과 주요단어를 알려주면 원어민 교사는 그것에 맞는 사진자료를 찾아 PPT를 만든다. 원어민 교사가 PPT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가) 그들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위트]가 스며든 사진 자료를 활용.

나) 의도적으로 여러 인종의 사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세상은 넓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곳임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함.

다) 원어민 교사 스스로 각 단원의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2) 문법지도

의사소통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교육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있었으나, 결국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유창성 뿐 아니라 정확성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문법 지도는 불가분이다. 학생이 문법 오류를 범하는 것은 비단 쓰기 활동에서만은 아니다. 학생들의 발화 속에서도 문법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원어민 교사가 더욱 잘 발견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모국어로서 영어를 들을 때, 문법 오류에서 바로 거슬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원어민들이 문법에 틀린 것은 알지만 왜 틀린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의 오류를 지적하면 한국인 교사는 학생들이 자주하는 오류를 수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오류를 전체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류를 범한 학생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수정하거나 차시가 끝날 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차시가 끝난 후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학습지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 나. 수업 중

##### 1) 부진아 지도

한국인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숫자의 학생을 만나는 원어민 교사는 각각의 학생의 실력 및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인 교사는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그 학생의 실력, 성격(활발한 성격인지 내성적인 성격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원어민 교사가 주도한

학습 활동(Listen & Repeat 활동)을 할 때 한국인 교사는 부진학생을 1:1로 지도한다.

## 2) 짝 대화 예시 (Eye Contact)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텍스트는 주로 대화글이다. 말하기 활동 또한 대부분 대화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말하기 활동을 마치 읽기 활동인 마냥 시선을 텍스트에 고정시켜두고 소리내서 읽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말하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쑥스러워한다. 특히 어른과의 대화시에 눈을 응시하고 대화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다. 그러나 영미 문화권에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경청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인데 그들의 언어로 대화할 때는 그들의 문화에 맞춰 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원어민 교사와 연구자는 Small Talk 활동, 게임 시범을 포함하여, 평소에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모든 [통제된 연습] 단계 끝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Eye Contact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짝 구성]에 면밀히 신경 써야 한다. 연구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짝과 4인 1모듬으로 구성되는 모듬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과 친하고 편한 상대를 짝으로 고르기 때문에 Eye Contact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 3) 게임 설명 (Concept Checking)

게임을 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Concept Checking이다. 어린 학생들은 영어가 아니더라도 교사의 말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하물며 아무리 쉬운 문장으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외국어로 들은 게임 방법을 온전히 숙지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원어민 교사가 게임 방법을 설명하면 한국인 교사는 Concept Checking해야 한다. 이 때 의문문의 형태로 문장을 바꾸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평서문을 그대로 활용하되 제스처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2.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 전개

### 가. [발화] - [제시] - [통제된 연습] - [유도된 연습]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40분 수업은 [이전 단원 복습] - [본 차시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전 단원 복습]이란 PPP 모형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매 시간마다 [발화] 형태로 복습한다. <표 1>의 2~4번 활동이다.

[표 1] 1차시 수업 흐름

순서	활동	세부 활동
1	Teachers' Small Talk	·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2	Small Talk	· 학생들은 모듬 학생들끼리 여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활용하여 대화한다.
3	Small Talk with Dirty Spoons	· 원어민 교사는 무작위로 선택한 학생과 대화한다. · 두 학생이 대화한다.

4	Review Game	· The Favorite Guessing Game: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임.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단원 복습 게임이다. · Who Is It?: 무작위로 선택된 종이 속 묘사된 인물을 찾는 게임. She Has Long Hair 단원 복습 게임이다.
5	과제 검사 with Dirty Spoons	·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한다.
6	노래 부르기	· Month's Song 부르기
7	PPT	· 원어민 교사가 만든 PPT를 통해 핵심구문 연습한다.
8	Look & Listen	· 처음으로 교과서를 제시한다. 교과서 속 대화글을 듣고 원어민 교사의 PPT에서 배운 표현이 있는지 찾도록 한다.
9	Listen & Repeat	· 교과서의 간단한 대화글을 연습한다.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가 대화의 예를 보이고 파트를 나눠 연습시킨다.
10	Review	· 본 차시에 배운 표현을 복습한다.

[본 차시 수업]은 과제중심 교육과정 중에서도 형태초점교수법(Form-Focused Instruction)에 맞춰 학생들에게 문형을 제시하고, 통제된 연습과 유도된 연습을 통해 충분히 연습한다. <표 1>의 7~10번 활동이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문형 제시]
- ②[통제된 연습, 듣고 따라하기]
- ③[영상을 통해 문형이 사용되는 상황 제시]
- ④[영상 속 대화에서 ①,②에서 연습한 문형 찾아내기]
- ⑤[통제된 연습, 짧은 대화글 제시]
- ⑥[유도된 연습, 문형에 맞추어 본인의 이야기를 함.]

[본 차시 수업]은 다음 단원을 배울 때 [이전 단원 복습] 단계에서 발화로 반복 연습된다.

나. Small Talk

사교육을 통해 원어민교사를 만나지 않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과서 CD, EBS 방송, 사이버 가정학습 등 컨텐츠에서 영어 대화 장면을 접한다. 즉, 학습을 위해 정선된 대화글을 전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듣는 것이다. 다인수 교실 상황에서 청자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중 담화적 능력의 예가 된다. 교사들의 대화가 끝나면 학생들은 예전에 배웠던 표현을 활용하여 모둠(4인) 친구들과 답소를 나눈다. 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작년부터 공부했던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발화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문형 없이도 그 동안 배웠던 표현을 충동원하여 유의미한 대화를 한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이다.

[표 II] Small Talk 할 때의 질문 유형

질문	관련 단원
· How are you? · How is it going?	4학년 1단원 How Are You?

· How's the weather today?	3학년 9단원 It's Sunny
· What did you do yesterday? ·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4학년 12단원 I Went to the Zoo
· What's your favorite ____? (subject / season/ sport / food / animal)	5학년 3단원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 What does she look like?	5학년 4단원 She Has Long Hair
· What do you do on Sundays? ·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5학년 8단원 What Do You Do after School?

학생들끼리의 대화가 끝나면 교사와 학생의 Small Talk를 한다.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는 [학습]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실제 [대화]이다. 영어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 다. Review Game

언어는 끊임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때문에 간단한 게임으로 전 차시에 배웠던 표현을 매 차시마다 반복하여 발화한다. Small Talk도 이러한 반복의 일환이며, 매 차시 반복하는 게임은 [The Favorite Guessing Game]과 [Who Is It?]이 있다.

##### 1) The Favorite Guessing Game

3단원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를 배우고 나서 반 친구들의 기호에 대해 인터뷰하도록 과제를 내 주었다. 이후 Dirty Spoons를 이용하여 학생(A)을 뽑으면 교사는 "What's (A)'s favorite \_\_\_\_?"라고 이 학생(A)에 기호에 대하여 질문하고 학생(A)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이 답을 맞출 수 있다. 매우 간단한 게임이지만, 전체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영어시간 외에 영어체험실 밖에서도

"What's your favorite \_\_\_\_? / My favorite \_\_\_\_ is \_\_\_\_." 라고 대화하게 된다.

##### 2) Who Is It? (친구 묘사하기 게임)

4단원 She Has Long Hair 쓰기 활동으로 종이에 친구의 외모에 대하여 적고 구겨서 바구니 안에 넣어둔다. 매 시간마다 한 개씩 무작위로 꺼내서 교사 또는 학생이 종이 속의 글을 읽고, 나머지 학생들이 묘사 속 인물을 찾아내는 게임이다.

### 3. 연구결과

가. 역동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 차시 및 단원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두 교사의 라포 형성에 의해 한국인 교사가 제시하는 화상영어수업<sup>2</sup>이나 영어동아리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학생들이 학습한 문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시도하였다.

<sup>2</sup> 캐나다에 살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가족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은 학생을 가르쳐본 적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가족에게 학생들 수준과 사용해야 하는 표현을 미리 인지시켜야 했고, 웹캠 설치 및 화상전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여러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차시가 끝날 때 항상 배웠던 문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음 차시 시작할 때의 Small Talk부분에서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다.영어체험실 밖에서의 학생들 발화를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친한 친구와 짝, 모둠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짝과 대화하는 것에 부담감 없이 영어 체험실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업 중 배웠던 표현을 연습하고 한다. 예를들어 교사가 숙제로 내 준 것은 아니지만 수련활동을 가서 저녁밥을 지으면서 영어 시간에 배운 표현으로 대화한다. 교내에서 영어교사를 만나면 한국인임에도 자연스레 영어로 대화를 시도한다. 점심 시간이면 5학년 학생들이 “Enjoy your lunch.”라는 인사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사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수업 준비에 효율성을 높이고 수업 중 역동적인 교수가 가능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새로운 게임을 익히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매 차시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 문형을 익혀 통제된 연습 후 유도된 연습의 과정을 거쳐 발화까지 확장시켰다.

셋째, 학생들은 매 차시마다 이전에 배웠던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이렇게 하세요*. NIIED 국립국제교육원

윤여범 외. (2011).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천재교육

윤여범 외. (2011).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이완기. (2001).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이완기. (2009). *초등영어 평가론*. 서울: 제이와이박스

중도일보, 20110303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103030016](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103030016)

#### About the Presenter

**Jihyun Moon**, teaches English at Gwangju Haggang Elementary School. She got her M.A. in English Education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addition to teaching English, she has studied as a member of Noleeter(Study for Educational Play: <http://cafe.daum.net/theatergoer>) since 2008. She wrote her book on Classroom Management in 2008. *Email: dodoua@gmail.com*